宗會報는 家統資料
BIP GROUP International Corporation
BIP㈜ www.bip-korea.com

咸安趙氏宗會報

발행인 · 趙 英 濟
편집인 · 趙 英 濟
발행처 · 咸安趙氏大宗會
慶南 咸安郡 郡北面 中岩里 29-1
☎(055)585-6788, (051)626-1572
인쇄처 · 도서출판 국제
☎(051)246-5667, 247-9904
FAX(051)246-2825

參議公의 振武原從功臣녹권등

유형문화재로 지정

유경재 대문간 양쪽에 입간판 세워

參議公 휘 익도(益道)의 공신녹권과 교지(敎旨) 그리고 악무목왕정충록등이 경상남도 지방 유형문화재 제346호와 제347호로 각각지정되었다.

경상남도가 그 내용을 기록한 입간판(영문 병행)을 함안군 군북면 사도리 유경재 대문간 양쪽에 세워 400년 가까운 세월동안 참의공 문중에 보관되었던 각종 유물들이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어 가문(家門)의영광이겹쳤다.

기록에 의하면 인조(仁祖)2년 이괄(李适)이 난을 일으키자 참의공이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로서 왕에게 충성을 명세하고 최전선에서적과싸워큰공을세웠다.

이로 인하여 진무원종공신일등훈(振武原從功臣一等勳)에 녹권되었고, 특별히 하사받은 악무목정충록(岳武穆精忠錄)과 광해군(光海君) 4년(1612년) 김직재(金直哉)의 옥사를 성공리에 마무리 지은 공로로 형난원종공신일등훈



▲ 참의공 휘 익도의『진무원종공신녹권』등이 보관되어 있는 유경재

(亨難原從功臣一等勳)에 녹권되었으나 광해군의 폐위로 아무런 빛을 보지못한채 통정대부(通政大夫)증직의영조(英祖) 교지와당시 호적부등 참의공 문중에 보관된 것을 최근 경상남도에서 알게되어 문화재위원들이 유경재를 방문하여 현물을 직접 보고 당시 역사적 사실규명의 귀중한 자료로 판단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문화재로지정한것이다.

한편지난9월14일문화재청(文化財廳) 연구팀이 군북면 사도리 유경재에 와서 가지고 온 장비로 문화재로 지정된 정충록등을 한장씩스캔하여 CD화하는작업을 5일동안벌렸다.

漁溪선조 묘역 표석
법수면국계네거리로옮겨

대종회는 남해선고속도로변에 세워두었던“ 생육신 정절공 어계선생묘역안내 ”표석을지난9월10일 법수면 국계리 네거리로 옮겨세웠다.

1995년 어계선조 재사 응암재가낙성된뒤묘소와재사를찾는 후손들이 많아져 대종회는 높이 1m70cm의 자연석으로 제작된 표석을 도로공사의 허가를 받아 고속도로변에세웠다.

그런데 최근 고속도로 노선이 우회 되면서 효력이 상실되자 이를묘소에서1km 전방국계네거리로옮겨세운것이다.

大笑軒先生이 殉國하신

黃石山城 聖域化 추진

정유재란(丁酉再亂 1597년) 당시 1만7천명의 왜병과 황석산성을 사수하려는 맨주먹의 주민 500여명과 4일동안 맞서 싸우다 가전원산화(散華)한함양군서하면황석산성의한 많은 전투가 뒤늦게조명(照明)받을것같다.

순수민간단체인황석산성순국선열추모위원회가10여년전발족되어 매년 음력 8월18일 성이 함락되던 날 지방행사로 추모제를 모셔왔는데 올해부터 함양군이 인계받아행사를주관했다.

이날 千士寧 군수는 추도사를 통해 대소헌선생을 비롯한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기 위해 금산(錦山) 칠백의총(七百義塚) 규모의성역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와 절충 중이며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대학교수들에게 용역을 주어 기초작업에 착수할 것이라 말했다.

전 함안조씨 대종회

鏞韶 회장님 타계



함안조씨대종회鏞韶전회장님이지난9월27일하오9시 55분 80세를일기로별세하셨다.

우리 문중의 거목(巨木)이 쓰러진 것이다. 반평생을 위선(爲先)에 몸 바치신 어른이셨다. 말씀으로 앞장 서신 것이 아니라 먼저많은헌성금을쾌척하시면서 실천에 앞장 서신 어른이셨다. 이 어른의 함안조씨에 대한 공적은 너무나 많다. 이 어른은 헌성금이란 물질보다정신이항상앞섰다.

숭조(崇祖)정신이몸에벤분이셨다. 宗史에길이남을분이셨다. 그래서많은일가들이 그어른을 존경하고따랐다. 대종회에몸담으신뒤 앞장 서신 위선사업들을 간추려 보면, 88년 강원도 영월(寧越) 청령포부근에정절공어계선생사적비를건립함에 있어 천리길 영월에 스물네번이나 비포장도로를자비(自費)로왕복하시면서때로는6척비신(碑身)을충청도에서함안으로, 비문쓴비를 다시 영월까지 운반하는 고역을 자청하시면서 성대한 제막식을 가져셨고 90년도엔 부산화수회장을 2년동안 맡으셨다. 94년에 제4대대종회장을맡으신즉시어계선생재사(齋舍) 응암재(鷹巖齋)

반 평생을 爲先 위해 봉사해
宗史에 길이 남을 巨人 永眠

중건공사를 마쳤고 함안조씨 종회보를창간하셨다. 2001년에는 함안조씨 족보창간기적비를 수립, 제막하시고 2003년엔 내헌공(耐軒公) 재사 영모재(永慕齋) 중건에앞장서셨고2004년에는 후손들의교과서역할을할함안조씨 대종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신후신병으로만 10년만에회장직을사임하셨다. 그리고 회장님은투병끝에별세하셨다. 대종회는 10월1일 대종회장으로 영결식을 거행, 명복을 빌었다.【영결식조사(弔辭) 2면전재】

宗 告

함안조씨대종회가 발행하는 宗會報가 39호부터시대흐름에 따라 가로로 제작하면서 활자도 한호높혔습니다.

대종회는 선대 조상님들께서 세로로 사용하신 전통을 계승하려고 고집스럽게 지켜왔던 것인데 전국 많은 종원들이 시대를 따르는것도 순리라하여 서기 1994년 11월 창간이래 만10년만에 가로로 제작하게 된것입니다.

종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바라마지않습니다.

참판공파(參判公派) 파보 발간 안내

참판공(諱 舜)파에서는 1961년 파보 발행 이후 43여년이 경과하여 금번 문중의 뜻을 모아 「참판공파보발간위원회」를 구성하고 파보편찬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05년 발간을 목표로 하여 소종중별로 수단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각 소종중(榮 字 기준)에서 연락받지 못한 참판공파 종원님께서는 해당 문중연락처 또는 발간위원회에 연락하시어 한사람도 누락됨이 없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단(收單) 접수기간 : 2004년 12월 31일까지
2. 명아전 : 男女 老少 구분없이 일인당 20,000원
3. 연락처 : 서울본소/서울 중구 산림동 207-2 대림상가아파트 555호
함안조씨화수회 총연합회 사무실내
충래 ☎ 02) 2264-9192 011-9864-5762

- 봉사공(鐸) 연락처:세제☎ 02) 2066-6028 010-7325-6028
- 처사공(鐵) 연락처:정래☎ 02) 463-9973 011-9709-9973
- 평시서령(鎰) 연락처:현홍☎ 031) 673-9193 011-354-7073
- 좌랑공(弋) 연락처:재열☎ 02) 6329-6500 011-284-6900
- 세도(世道) 연락처:상래☎ 054) 772-0762 011-515-0762

參判公派譜 發刊委員會 會長 慶來

武濟대법관 퇴임후에도 청빈(淸貧)의 길 택해

東亞大 法大 석좌교수로 추대

청빈법관의 상징으로 불려지고 있는 武濟(63 · 참의공파) 전대법관이 사회의 많은 유혹을(변호사의길) 뿌리치고모교인부산동아대학교법과대학석좌교수의길을 택했다.

지난8월 17일법관생활을마감하는 퇴임식에 참석하고 도 9월2일 동아대 강당에서 거행된 석좌교수추대식에참석하여후배들의 따뜻한환영을받았다.

武濟전대법관은 인사말에서 " 우리 교육환경은 급변했으며 특히 법학의 경우 전문대학원 도입 등으로 더 한층 급격한 변화를 예고하고있다 "고전개하고" 종국적 문제는학문연구와면학분위기의 강화일 것 "이라 취임포부를 말했다. 벌써 의욕이 넘치는 소신이었다. 동아대측에서는 대법관을 지낸 분이 변호사의 길을 마다하고 곧바로 전업으로 강단에 서는 사례는 아마도 처음일 것이라 말했다한다.

돌이켜보면 武濟전대법관이 법조계에 34년동안 몸담아 있으면서많은일화를남겼다. 이가운데 몇가지를 간추려 보면 93년도 첫



▲ 동아대 법대 교수로 추대식에 참석한 조무제 전 대법관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공개대상 고위법관 103명중 꼴지를 차지하면서 " 꼴찌판사 "란 별명이 붙었고, 대법관 취임전부터였지만 대법관 취임때인 98년 재산 신고액이 7,000만원에 불과해 " 청빈판사 "란별명이붙었다. 대법관이된 뒤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하면서 서울 서초동에 보증금 2,000만원의 원룸 오피스텔에 거주했던 것을법조출입기자들이밝혀내화제가되기도했다.

더 유명한 것은 94년 창원지방법원장 시절부터 장관급 예우를 받는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10년간배정된비서실의4급서기관급 비서관도 마다하고 혼자 업무를 수행한법관이었다.

법조주변에서는 그를 가리켜 " 대통령이 청탁을 해도 안들어줄 법관 "으로 통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재판수당을받아직원들에게 소주값을대주는인정많은법관이기도했다.

武濟전대법관은 동아대 법대를 졸업하여 70년대부터 27년동안 부산과 경남지역에서만 봉직해온 향토법관이었다. 다시 동아대 법대에서법조생활의풍부한경험과 격조높은 강의를 하면서 후학 기르는 일에 열중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武濟종원은우리함안조씨문중에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參議公문중에 의하면 그렇게 바쁜 일과에도 선조에 대한 행사에는 소홀함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대종회가 발행하는 종회보 제작에도 보탬이 되도록 1년에 10~20만원씩 보내주셨다.

종회보 협찬 부진으로 40호 발간 난관

협찬금도극심한불경기를타는 것 같다. 지난해 3/4분기에는 63명의 일가님들이 484만원을협찬해 주셨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명의 일가분들이 239만원을 보내주셨다.

지난해는 2004년도 이월금이 761만원에달해한호제작비가되었지만 2005년도 이월금이 400만원에도 못 미칠 것 같아 내년 2월에 발간되는 지령 40호가 정상적으로 발행될지 의문시 되고 있다. 특찬 해주실 독지가가 나오기를기다리는수밖에없다.

그런 와중에도 지난 8월17일 퇴직하신 武濟 대법관이 익일 18일 20만원의 협찬금을 보내 주셨고 경기도 파주시 咸趙會용미리 청년회서 20만원, 경북 청송芝嶽公派中(종손 昌來)에서「선조의 얼」36호 게재에 감사의 뜻으로 20만원을, 또 慶山화수회서 15만원을, 부산에 거주하시는 孤竹齋公派 在奎종원을 비롯하여 東榮(濟)마산화수회회장, 고성에서농장을경영하는京文(濟)종원, 직전 鏞韶 회장님의 아드님으로 부산동아대학교 교수인 任濟종원, 경남은행 道濟지점장, 함안축협 相濟대라가 각각 10만원씩 협찬해 주셨다.

또현회장님의큰아드님曾來종원을 비롯하여 碩來함안군화수회장, 효성그룹鴻이사, 博來마산시청 국장, 서울실업(주) 雲顯사장, 전 부산동백초등학교 鍾連교장이 각각 10만원씩을 협찬해 주셨다. 이밖에서울, 부산등13명의일가님들이 성의껏 보내주셨다. 감사합니다.

參判公派 파보제작 순조

참판공파 파보편찬위원회(회장 慶來)가 추진중인 파보 수단(收單)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에 수단을 마감할 계획으로 박차를가할것이라했다.

慶來회장에 의하면 수단은 래(來)자를 기준으로 9대조(代祖)인 영(榮)자 소문중(小門中)에서 선출된 1명씩의 수단위원이 지난 7월14일 회의에서 지시된 요령에 따라 소문중에서 취합되는 원고를 편찬위원회 사무실에 제출하기로한것이다.

수단 범위는 애당초 1961년에 발간된 신축보(辛丑譜)를 중심으로 제작할 것으로 고집했는데 신축보에 수단이 누락된 후손들의 항의가 거세, 여러 차례 의견을 조정끝에 1979년에발간된기미대동보에 등재된 집안은 전원 수용키로했다한다.

파보편찬위원회는아직 소식을 듣지 못한 후손들은 소문중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당부하고있다. 사무실전화번호는 (02) 2264 - 9192이다 【1면광고참조】

삼가 이글을 幽明을 달리하신 琴湖 會長님의 靈前에 올립니다.

弔辭

會長님!

琴湖會長님!

불러도 왜 對答이 없습니까? 그헌칠한맵시와嚴正한慈稟은 다어디에두고오늘은왜對答이 없습니까? 한 平生 그토록 긴긴 歲月속에金枝玉葉같이사랑하던完濟, 任濟, 軒濟, 佑濟와全서방네延泰五男妹를두고오늘은 어디로가신단말씀입니까?

10年을 하루같이 大宗會에서 和氣靄靄한 雰圍氣에 情들었던 宗員과서산서원, 鷹巖齋그리고 咸州山川을 두고 어디로 가신단 말씀입니까?

平素恪別하신衛生觀念으로百年長壽를헤아렸더니어찌하여한번病患으로千古永訣이라니오늘 이게무슨靑天霹靂이랍니까?

會長님은嶠南世族으로簪纓赫赫 하였으며 咸州大姓으로貞節, 耐軒, 同知公의後裔로태어나셨습니다. 稟性剛直하고 才敏事達하여破邪顯正으로寡默躬行하였습니다. 睦宗欵賓하고 樂善好恤하였으며孝友爲本으로周到綿密하시고早遊官海에稅關勤續하니 勤政褒章받으셨습니다. 斯道盡力하여斯文에該博하고言筆流暢하여事理에瞬發하니宗統을保全하고宗權을 伸張하였습니다. 그 옛날 漁溪 할아버지께서 上王을 그리워하듯 애틋한 그 마음으로 寧越의漁溪碑苑造成에五百里길 非鋪裝道路를 24번 自費來往 獻誠하시고鷹巖齋重建에五父子이름으로 率先巨額을快擲하니宗員이呼應하여거뜬히추녀가빛나는 齋舍의 完工落成하니 全國宗員의 求心處가 되게 하였습니다. 宗會報를發刊하여全國坊坊曲曲의 30萬 宗員이崇祖和合하고百世淸風의先祖의遺勳을몸에받아서하나로歸依하는行動綱領으로삼게하였습니다.

그뿐아닙니다. 어려운 與件을무릅쓰고인터넷홈페이지를開設하여全國의宗員들이어디에서라도볼수있게하여宗員의團合과 硏鑽에 一助하고 나아가 咸趙의世界化事業에寄與하였습니다.

이렇듯 會長님은 創業보다 더 어려운우리大宗會의中興的雄飛를 이룩하여 紀念碑的 位相을確保하였으니 宗史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平素 그리도人情스런琴湖會長님은오늘따라어찌한마디말씀도 없으십니까? 둘러친 屛風앞에香불煙氣만아련히피어오르는데 謹嚴하게 寫眞으로만 보고계시니도대체어떻게되었단 말씀입니까? 정말로우리를두고 가신단말씀이십니까?

會長님은 修身齊家함에 孝悌忠臣과 知行合一을 生活信條로 삼으시고 敎子義方함에 淸白救恤하고 克己自立하라고 力說하셨습니다. 宗事를爲하여서는疲困도, 來日도, 돈도, 時間도모두 모르는채 沒我之境에 빠졌으니 오늘의 離別을 自招하였는지 모를일입니다. 아무튼 道德君子처럼喜怒哀樂을내색하는일없고 滅私奉公하고 務實力行하는 野戰司令官이셨습니다.

會長님!

生者는 必滅하고 會者는 定離한다고 했으니 우리 一生一代는 참으로 一場春夢입니다. 今世는 如夢이요富貴는皆空이라. 極樂淨土는 永遠無窮하다고 했습니다. 草露같은人生! 汚染되어가는 俗世에서 永遠한 安息處로 鶴처럼仙化하신會長님을고이보내드리옵니다. 먼저가시어자리하나잡아두시면우리들宗員도徐徐히따르오리다.

그 어느때던가, 對人春風처럼 흐뭇한人情을또어디에서찾으며저어느곳이던가. 閑雲野鶴처럼高孤한人格을그어느곳에서 接하리까?

從玆以往에 誰與更樂이며 眞率談笑를 從何更聽일꼬. 伯黃山色은 巋巋蒼蒼하고 南江水波는 悠悠長長다름없는데이由緖깊은고장을두고會長님은어디로 가신단말씀입니까?

綺羅星 같은 五男妹가 저렇게 哀絶하게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追慕하는宗員들이이렇게 悼惜하게 會長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 哀絶한 부름과 이 悼惜한 찾음이 들립니까? 안 보입니까? 이승에서못다한일, 못다한말씀 묻어둔채 80세를一期로忽然히 仙化하셨으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꺼졌습니다.

嗚呼痛哉라, 嗚呼哀哉라.

琴湖會長님이시어.

이제 會長님을 永訣하는 우리 모두는 合掌하여 그날의 赫赫한 功績을기리며 그날에그리좋아하시던百歲酒 한잔올리며極樂往生의 冥福을 비옵나니 在天하신英靈이시어 널리굽어살피시옵소서.

2004년 10월 1일

咸安趙氏大宗會 會長 趙 英 濟

咸安趙氏 大宗會의 發展을 祈願합니다

咸安趙氏 釜山花樹會

會 長: 趙亮濟(節度公派)

副 會 長: 趙漢奎(大笑軒公派) 趙宣奎(監察公派) 趙世奎(同知公派) 趙榮奎(斗巖公派) 趙鶴奎(韜巖公派)
趙錆濟(執義公派) 趙元濟(同知公派) 趙栢濟(大笑軒公派) 趙壽濟(執義公派) 趙成濟(節度公派)
趙末來(四味堂公派) 趙錫來(大笑軒公派) 趙範來(參議公派) 趙義平(顯·大笑軒公派) 趙永鎬(大笑軒公派)

監 事: 趙魯濟(執義公派) 趙晶來(大笑軒公派)

事務局長: 趙鏞範(節度公派)



趙鏞燮
<공의 11世孫>

都事公 휘 顯道의 行錄

공의 휘는 현도(顯道)요, 자(字)는 여회(汝晦), 어계선생의 5세손이요 절도공(節度公) 휘 수천(壽千)의 증손이며 증(增)의 아들로, 도사공(都事公) 파조이시다. 공은 서기 1565년(명종 20년) 함안 원북동에서출생하셨다.

공은어려서부터어버이를섬김에 승순(承順)하며 한치의 어김도 없었다한다. 공의나이겨우 10세 때 연이어 부모님이 별세하셔 외동아들로서3년동안을슬프게곡(哭)하기를 끊이지 않았으며 또한 할머니 밀양 박씨를 극진히 봉양(奉養)하는데도게으러지않았다.

공의 나이 28세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종(三從) 형님들은(대소헌공, 판서공, 감찰공) 모두 벼슬을 하여 각각 전선에서 창의토적(倡義討賊)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할머니 봉양 때문에 참전 못함을 한탄하면서“ 이 몸은 어찌하여 벼



▲ 都事公 휘 顯道의 묘

슬길에도 나가지 못하고 형제도 없으니 누가 할머니를 봉양할 것인가 ”탄식하면서“ 임금님께충성할 날은 많아도 어버이 섬기는 날은짧다 ”면서 할머니 봉양에 정성을다하였다.

갑자기 왜구(倭寇)가 들이닥치자 백성들은 갈바를 못찾고 우왕좌왕하였다. 공은 아무 준비도 없이 할머니를등에업고피난길에올랐다.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난을 피하여 강을 건너 경북 예천의 용궁(龍宮)땅에도착하였다.

공은 이곳이 다소 안전하다고 판단하여 잠시 머물기로 하고 할머니를 어느 집에 맡기고 이웃마을을 다니면서 품삯을 팔아 할머니를정성껏봉양하였다.

어느날소문에이곳고을원님의 성함이박진영(朴震英)이라하였다. 그 원님은 할머니의 친정 종손(從孫)이였다. 그가 이곳 현감(縣監)으로부임하고짧은기간쌓은공적이 너무커주민들로부터칭송을받고 있었던시기였다. 공이원님을찾아 뵙고사정을아뢰니박공이놀라면서공의손을잡고반가워하며말하기를“ 지금과 같은 난중(亂中)에는 부모형제가 서로 떨어지기가 십상인데그대는할머니를업고이곳까지 피난왔으니 그 효성(孝誠)이 지극(至極)하다 ”하고 공과 할머니를 영접(迎接)하여함께살게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 공이 안동(安東)출신으로 군수(郡守)를 역임한 문권제(文權濟)의 따님에게 장가를들었고그후함안원북동고택(古宅)으로돌아왔다.

공은그뒤 음보(陰補=조상의음덕으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 벼슬길에 나가는 제도)로 승훈랑 의금부도사(承訓朗 義禁府都事=조선때 관리의 감찰을 맡은 종5품)를 배명받아 그 직을 수행하였다. 공은 서기 1637년(인조 17년) 74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묘소는 함안군 군북면 원북동 절도공 묘소 아래유좌(酉坐)이다.

한편피난갔다가우연히만난朴震英공이헤어질때공에게주고또한 공이 답한 삼인자운(三人字韻)으로된한시(漢詩)는다음과같다.

吾君可謂孝爲人=그대는 가위 효자로다.

驚喜如逢地府人=놀라서 기쁘게 맞이하니고향마을사람이였도다.

공이 차운(次韻)하여 다음과 같은시(詩)로지어답하였다.

奔避多年萬死人=피난길 여러 해에많은사람이죽었는데

賴全龍邑至情人=용읍(龍邑)의 지정인에게온전히힘을입었노라.

於余不但輸恩厚=두터운은혜로 베품이비단나뿐만아닌지라.

忠義南州第一人=충의의마음은 남주제일인이었더라.

10세때 부모잃어 3년간 곡하며 애도 壬亂때 할머니 업고 예천까지 피난 陰補로 承訓郎으로 拜命받아 봉직

采薇亭의 觀我齋 記文 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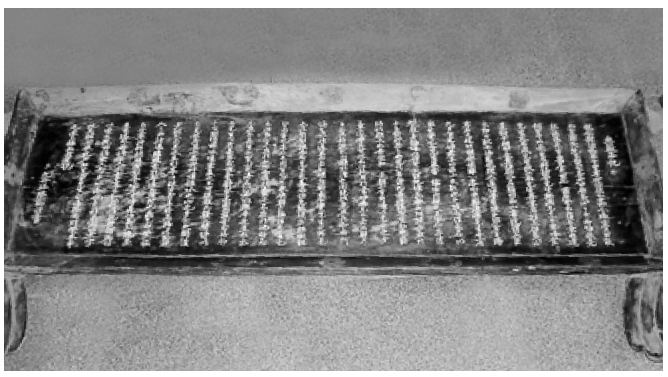
문화재 가치높아 大宗會서 보관

함안군 군북면 원북동 소재 채미정문설주위에걸린관아재휘 영석(榮祏)이 서기 1759년 (己卯年)에쓴채미정기문이문화재로 지정될수있다는유홍준(兪弘濬=현재 문화재청장)씨의 말에따라 대종회는 이 기문을 철거하여 사무실에보관하고있다.

대종회는 유씨가 문화재청장에 발령받기전명지대미술과교수시절 채미정에 들러“ 조선왕조 후기(18세기) 삼재(三齋)의<겸재(謙齋), 현재(玄齋),관아재(觀我齋> 한사람인관아재가쓴기문이라면문화재가치가 충분하다 ”고 깊은 관심을 표명 했다고 한다. 대종회는 즉시 이현판을철거하여사무실에보관하고있다. 이기문은1759년관아재가의령(宜寧)현감으로재직했을 때 이곳에 들러“ 종족어른들이 정자(亭子)의 기문을지어문설주 위에걸도록명(命)하여훗날 어계선생(漁溪先生) 후손의 작품인 것을 알게된다면얼마나영광스러운일이겠나 사양않고 이 기문을 쓴다 ”고말미에적어놓았다

채미정에 있었던 이 현판(懸板)은세로26cm, 가로92cm이다.

한편지난9월15일개최된회장단회의에서 진품은 박물관에 보관하고 진품과 같은 모조품을 제작하여그곳에걸도록의결했다.



▲ 관아재 휘 榮祏이 써 채미정에 걸어둔 記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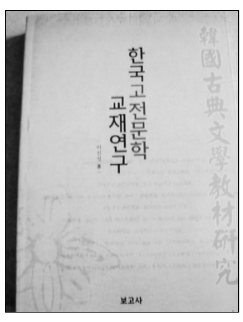
「파도를 헤치며 희망을 노래하며」책 발간

【趙椿 종원】

(주)효성 울산공장 趙 椿(來=大笑軒公派)관리이사가 최근 주로 노동문제를 다룬「파도를 헤치며 희망을 노래하며」란 382페이지에달하는책을발간했다.

椿이사는 1973년도 효성에 입사하여 노사(勞使)관계에 대한 업무에 전담 하면서 경험했던 바를 책으로서술한것이다. 그는현재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노사관계 후진국으로 고착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 세계적인 경영평가기관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한국노사관계 안정성을 조사대상국 49개국 가운데 47위 정도라했다한다.

椿종원은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떨어지는 생산성등 이러한한국의노사현실을심도있게, 또한문제점을파헤치고있다.



◀ 漁溪先生 네번째 논문집

漁溪先生 네 번째 논문 발표【釜山敎大 李愼成 교수】

부산교육대학교 李愼成교수가 최근 “ 한국고전문학 교재연구 ”란 논문집을발행했다.

469페이지에 달하는 이 논문집 가운데 漁溪선조의 호배도강전설(虎背渡江傳說)의의미(意味)란논문을게재했다.

내용에 의하면 1) 머리말, 2) 호배도강전설의 전승양산(傳承樣相), 3) 호배도강전설의 구조(構造)와 형식(形式), 4) 호배도강전설의 의미(意味), 5) 맺는말로 구성되어았다.

李교수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 부근에 세워진 정절공 어계선생 사적비 비문을 쓴 李佑成박사(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및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의 실제(實弟)로서 李교수는 그간 漁溪선조에 대한 논문 세편을 학계에 발표한바 있다.

大笑軒先生 407주기 기제사 엄수

지난 10월1일(음력 8월18일) 하오 산청군 단성면 소남리 종가 세장(世莊)에서 함안, 부산, 대구, 진주, 합천, 호남등지후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소헌선생 407주기 기제사가 성대히 엄수되었다.

이날 오전에는 함양군 서하면 황암사에서 거행된 추모행사에 참석했던 후손들이 오후에는 이곳으로옮겨제사에참례했다. 이날 초헌관에는 顯貞종원이, 아헌관에는 明來(진주)종원이, 종헌관에는 判決公派良濟(대구)방손이, 축관에는 단성면장 吳晉煥씨가, 집례는 埻濟(진주)종원이 맡아 제를올렸다.

咸安趙氏 大宗會의 發展을 祈願합니다

咸安趙氏 晋州花樹會

軒 顧 問: 趙明來(大笑軒公派) 趙必奎(節度公派)
趙得來(大笑軒公派) 趙在勝(大笑軒公派)
趙京守(奎・參判公派) 趙彧來(大笑軒公派)
趙景來(大笑軒公派) 趙昌來(斗巖公派)
趙顯吉(大笑軒公派) 趙聖鎬(大笑軒公派)
會 長: 趙三郎(來・大笑軒公派)
副 會 長: 趙益奎(節度公派) 趙正夫(濟・節度公派)
趙殷來(大笑軒公派) 趙範來(大笑軒公派)
趙顯釘(大笑軒公派) 趙泳濟(禦侮公派)
監 事: 趙鏞一(節度公派) 趙 忠(顯・大笑軒公派)
事務局長: 趙亨秀(來・大笑軒公派)

증조부 墓所 찾아 咸安찾은 在日교포 康廣종원



아들 데리고 省墓길 訪鄕
오랫동안관리 안해 失墓
마을 뒷산 헤매다 눈물만

일본 滋賀縣 大津市 昭和町에 거주하는 교포3세 趙康廣(51=濟)종원이 증조부 휘 性模의 묘소를 찾아 성묘(省墓)하려고 아들형제를데리고모국을찾았으나 오랜 세월동안 묘소를 관리안한 탓으로 실묘(失墓), 눈물을 머금고 돌아간 안타까운 사연이 있다.

康廣종원의선대(先代) 고향은경남함안군여항면 주서리로 파(派)는 집의공파(執義公派)라한다. 그의 할아버지는 왜정때가난을벗으려고일본으로건너갔다. 그곳에서자리를잡으면서아들과손자도낳고 터전도잡았다. 康廣종원에의하면 일본인으로 귀화하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 뿌리치고 오직 함안조씨의혈통을잇기위해고집스럽게살아왔다고했다.

그는 그곳에서 서산중량설비회사(西山重量設備會社)를 차리고잘살고있다.

지난 4월말 그는 큰아들 賢來(23)군과작은아들慶來(18)군과 함께 고향을 찾기로 했다. 처음가는 고향이라 동서지간인 敬來(울산농협근무)종원의 안내를 받아 여항면으로 갔다. 다행이면 친척뻘되는 전 함안군의회의원을지낸鉦濟형님을만나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전 일러주신마을 뒤산을 해맸으나 100년가까이벌초도안한산소가있을리만무했다.

그는 죄인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더욱 아들들 보기도 민망 했다. 그는 묘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군북면 원북동 현조(顯祖)이신 어계선조의조묘를비롯하여서 산서원등을참배하고채 미정등유적을촬영하면서 아들들에게 일본말로 설명해주기도했다.

康廣종원은 함안을 떠나면서 선조의 고향이 아늑하다면서 시간이날때마다자주찾겠다고다짐 했다 그는 한국을 떠나면서 종회보협찬금 30만원을기탁했다.

漁溪先祖의 九月登高詩
南奎종원, 대종회에 기증



▲ 부산 南奎종원이 대종회에 기증한 등고시액자



부산광역시금정구청용동南奎(同知公派)종원이 지난 8월10일 어계선조의구월등고시를검은화선지에 금분(金粉)으로 써 세로 1m40cm, 가로 81cm의 대형액자에 넣어 대종회에 기증해 왔다. 남규종원은 81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활발한사회생활을하고 있다.

50대 후반에 공직에서 퇴직한 뒤잊혀져가는우리전통시조, 가사, 가곡에심혈을기우려매년전국 경창대회를 개최하고 또한 서예(書藝)무료학원을 차려 18년간 봉사하고있다.

南奎종원은서예에일가견이있어 울산광역시 관문인 도로변 사자상(獅子像) 휘호(揮毫)를비롯하여 서울과 외국에도 많은 휘호를 남겼다.

四味堂公派 연못 난간 새로 단장



사미당공파종회(회장=末來)는 고인이된 慶來옹이 40여년전 채미정 마당에 연못과 연못을 건너는 다리를 조성한바 있었는데 난간 손잡이가 부식되어 보기 흉한 것을 새 것으로 교체공사를 한것이다.

사미당공파종회는연못난간손잡이가 오랜 세월이 흐르는동안 부식되어보기흉한것을지난7월 31일 공사비 100만원을 드려 말끔하게교체공사를마친것이다.

대종회英濟회장은이날末來회장등 사미당공파 일행에게 감사의뜻을전했다.

院北齋와 조묘 補修

함안군은 지방문화재 제159호인 원븍재와 조묘 출입대문 보수공사에착수했다.

지난9월1일 7,000만원의공사비로 지난해 태풍「매미」때 붕괴된 원북재 담장과 어계선조 내외분의위패를모셔둔조묘입구대문간을보수하는공사이다.

공사 내역은 담장 50m를 완전헐어 새로 싸고 대문간과 화장실을 보수하는 공사인데 10월말에 완공예정이다.

軒濟종원, 미국캘리포니아 패시픽대 교수 취임



軒濟(47 · 同知公派)종원이 지난 10월1일 미국 캘리포니아 패시픽대학교치의학교수로임용되었다.

헌제종원은 鏞韶 대종회 전 회장님의셋째아들로서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졸업하고미국캘리포니아패시픽대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여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가우치과종합병원을 운영하고있었다.

그런데미국모교에서강력하게 초빙하여부득히병원을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간것이다. 헌제종원의전공은치아교정학이다.

鏞浩종원, 경기도교육위원회의장에 선출



지난 8월27일 경기도 교육위원회 임시회의에서 鏞浩(67 · 參判公派)종원이제4대후기의장에선출되었다.

용호종원은 파주 문산고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을 수료, 파주읍장과 파주문화원 이사 그리고 파주군의회 의원을 거쳐 2 3대 도 교육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파주시 법원조정위원이며 4대 위원회전반기부의장을역임했다.

聲來종원, 서울시립대 교수로



聲來(47 · 農浦公派)종원이 지난 8월1일자로 서울시립대 정보학과교수로임용되었다.

성래종원은경남합천군봉산면 권빈리季濟종원의장남으로서울고등학교와 서울시립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원을거쳐 미국 LA 주립대학에서 2001년 교통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뉴욕지하철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이번 교수로임용된것이다.

采薇亭 담장 기와 도난

영남의사림(士林)들이어계선생을 비롯한 생육신(生六臣) 향례를 모시기 위해 숙종(肅宗)29년(서기 1703년)에 건립한 채미정이 여러차례 중수(重修) 되었지만 담장은 옛날그대로있었던것으로추정되고있는데그담장위의기와를최근 도둑이 훔쳐갔다. 대종회 사무국장에 의하면오래된막새기와가 채미정뒤담장에여러장얹혀있었는데최근문화재절도범이담장을 헐고30여장을훔쳐갔다고했다.

대종회는3년전보기흉한채미정관리사를철거한뒤예산이없어관리사를짓지못하고있다.

鏞根종원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용근종원이 지난 8월5일 정부발령에따라대전지방국세청장에 취임했다.

용근종원은 함안군 법수면 출신이며 대소헌공파이다. 용근 종원은서울지방국세청납세지원국장으로재직하다가영전했다.

宗 員 動 靜

▲趙麟濟종원=8월1일 동부증권 부산동래지점장으로

▲趙郁濟종원=8월1일 조흥은행 직원만족센터실장

▲趙鍾來종원=8월1일 중소기업청창업벤처정책과장

▲趙顯九종원=8월1일 굿모닝 新韓증권DCM 본부장으로

▲趙在玉종원=8월5일 SBS서울방송스포츠본부

▲趙鴻濟종원=8월6일 기업은행 선능역지점지점장으로

▲趙道濟종원=8월9일 경남은행 경남대학지점장

▲趙顯根종원=8월9일 관동대학교의대명지병원내과과장으로

▲趙顯根종원=9월1일 우리은행 목동지점지점장으로

▲趙京濟종원=9월18일 스포츠조선사회부레저팀장으로

協贊金 감사합니다

▲趙武濟(前 大法院 大法官)=20만원
▲芝嶽公派中(宗孫 昌來)=20만원
▲咸趙會 坡州 용미리 청년회 창립기념(회장 조병하)=20만원
▲慶北 慶山花樹會 會員 一同=15만원

함 안

▲趙鏞洪(산인면모곡리)=2만원
▲조정규(군북면신창리)=3만원

부 산

▲조용락(금정구장전동)=2만원
▲趙成濟(영도구 봉래동 봉래부동산)=3만원
▲조현태(북구 만덕2동 삼성APT)=2만원
▲조일성(濟 · 부산진구 개금동)=3만원
▲趙泰明(鏞 · 영도 · 耐軒公 門會有司)=5만원

서울 · 경기도

▲趙鏞厚(서울시 동대문구 장암4동)=5만원
▲趙在奎(釜山 · 孤竹齋公派 次宗孫)=10만원
▲趙東榮(濟 · 馬山花樹會 會長)=10만원
▲趙京文(濟 · 전 固城農協組合長)=10만원
▲趙任濟(釜山 · 東亞大學校 商大敎授)=10만원
▲趙道濟(慶南銀行 慶南大學支店長)=10만원
▲趙相濟(咸安축산협동조합 代理)=10만원
▲趙瑄濟(서울시 종로구 홍지동)=5만원
▲趙義濟(경기도 파주시 파주읍)=2만원
▲趙讚鷹(경기도 안성시 봉남동)=3만원
▲趙會來(경기도 성남시=英濟宗會長·長男)=10만원
▲趙碩來(咸安郡花樹會 會長)=10만원
▲趙 鴻(서울·효성그룹 구매지원팀 理事)=10만원
▲趙博來(馬山市廳 행정지원국장)=10만원
▲趙雲顯(서울實業(株) 代表理事)=10만원
▲趙鍾連(顯 · 釜山 전 동백초등학교 교장)=10만원
▲趙旭濟(삼성화재 경남기업보험팀장)=5만원

경 남

▲조기태(남해군 창선면 상죽리)=2만원
▲조정옥(남해군 창선면 당저리)=2만원
▲조학규(사천시 삼천포, 롯데대리점대표)=3만원
▲조양규(마산시 회원구 회원동)=2만원

대구 · 경북

▲趙正來(청송군 청송읍 금곡리)=3만원
▲趙三濟(대구시 북구 대현동)=5만원